

차기 이각모 會長 선출, 감사 허왕 · 조성인

재경시민회 25차 총회 겸 포천인의 밤 행사



이문용
 전 재경포천시민회장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는 12월21일 오후6시 서울시 광화문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한동 전 국무총리, 고 조흥 국회의원,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포천기관단체장과



이각모
 신임 재경포천시민회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정기총회 겸 포천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철휘 부회장이 소장에서 주장으로 진급하여 제8군 단장에 취임하여 축하패전달과 이

경호 부회장이 인제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축하패를 이문용 재경포천 시민회장이 수여했으며 박광조 교장은 포천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시민회 대표선수로 출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우리 시민회가 총회겸 포천인의 밤 행사를 하는 바로 이 자라는 19일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20일에 실시한 뜻깊은 자리로 우리가 오늘 21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니 가슴이 설렌다"며 "재경포천시민들이 내고향 포천살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참여 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뜻에서 포천인의 밤 행사 행운상품권도 고향 포천살로 준비하였으며 행운상품 타지 못하신 회원 모두에게 발맞추시고 발맞추어 좋으시면 무거

운 쌀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 안방에 앉아서 전화 한통화로 밥맛좋은 내고향 포천 쌀을 주문하시라고 500g 소포장 한포씩 드리오니 꼭 가져가 맛 보시고 밥맛 좋으시면 내고향 포천쌀을 이웃에 널리 전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경포천시민회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 후보자 등록 3개월전에 사퇴해야 하며 만약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아니할 경우 예비후보(본 후보 포함) 등록과 동시에 회장직은 자동 상실된다는 회칙 제12조 나항을 개정 신설하고 차기회장으로 이각모 수석부회장을 선출했으며 감사로는 허왕 부회장과 조성인 부회장을 선출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골프회 제2대 챔피언 이찬우

2007 아도니스 골프장 선정 最優秀 단체



포천신문 골프회는 12월27일 12시에 제2대 이찬우 챔피언 초청 오찬과 2007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은 이찬우 챔피언(왼쪽)이 박노현회장으로 부터 챔피언패를 전달받고 있다.)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박노현)는 12월27일 12시에 제2대 이찬우 챔피언 초청 오찬과 2007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노현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회원 여러분의 매너 있는 경기진행과 적극적인

참여로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포천신문 골프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효열 상임고문은 "창간 18주년 기념식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성

원에 감사드리며 포천신문 골프회 제2대 챔피언이신 이찬우 회원님의 열성적인 노력과 결과에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에는 1팀을 더 늘려 7개팀으로 각 위원회의 단합과 친목을 통해 포천신문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희준 고문은 "창립30주년 행사에 보내주시는 회원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크게 번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챔피언으로 등극한 이찬우 회원은 출석 48점, 우승 1회 5점, 준우승 1회 4점, 메달리스트 1회 5점, 근점상 1회 3점 등 65점을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다과상을 수상한 한희준 고문은 8경기에서 71개의 파를 기록했으며 다버디상을 수상한 김진우 회원은 이글을 포함해 8개의 버디를 잡았다. 한편, 2008년 회장인 윤종하 부회장은 "골프 룰을 배워 가는 과정이라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뒤에서 이야기하지말고 앞에서 지적하여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2007년 10경기 중 9월 경기는 우천으로 9홀 라운딩 취소했으며 11월에는 페어웨이 잔설로 경기가 취소돼 8경기의 성적을 집계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챔피언 이찬우 회원 ▶준우승 최효열 상임고문 ▶3위 양종진 회원 ▶베스트메너상 이미숙 회원 ▶베스트드레스상 김정선 회원 ▶다과상 한희준 고문 ▶다버디상 김진우 회원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34 아비 [Red-throated diver Loon]

어부들이 그물을 쳐야 할 장소 암시

지난해 11월말, 가람비 내리는 어느 날 여느때처럼 탐조장비를 들고 포천천에 나가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천 끝자락에 그동안 한번도 우리고장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새 한마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 후 도감을 확인하니 아비(阿比)였습니다. 주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의 표현을 빌리면서 가마우지 한 마리가 몇일 전부터 내려앉아 먹이활동을 하며 낚시대 근처로 자주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낚시인들에게 이새의 정확한 이름과 회귀성을 설명 드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들고양이나 천적으로부터의 공격등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렸더니, 우리고장을 찾아온 귀한 손님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역할을 자청하시며 밤늦게까지 주변을 지켜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덕분에 약5일 가량 안전하게 머물며 체력을 보충하고 남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류도감 "한국oise" 1쪽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새가 아비(阿比)입니다. 아비는 5종으로 나뉘며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드문 겨울철새로 아비, 회색머리아비, 큰회색머리아비 등 3종이 거제도과 남해안 연안에서 월동을 하고자 찾아옵니다. 특히 거제도연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0~2000마리 정도가 찾아와 집단으로 월동하는 곳으로 천연기념물 제 227호(1970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비는 캐나다, 알래스카, 쿠릴열도, 아무르, 사할린, 스칸디나비아 등 북극 주변에서 서식하며 별반의 얇은 호수나 연못 등지에서 번식을 하며, 겨울철에는 우리나라를 찾아와 월동하는 귀한 철새입니다. 이들의 이동경로는 주로 동해안을 따라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번처럼 무리에서 이탈한 개체가 내륙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아비는 바닷가에 살면서 잡수를 잘하여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고기때를 보면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 어부들이 그물을 쳐야 할 장소를 짐작케 하는 등 어업상 유익한 새입니다.



2006.11.17 포천천에서 촬영

그러나 행동은 다소 둔한 편이어서 천적으로부터 회생당하기가 쉬우며, 특히 선박 등에 의한 해양오염으로 기름범벅이 된 아비의 모습이 신문지상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비는 주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보통인데, 해안가 백사장에서 발견된다면 아마도 기름에 오염되었거나 부상으로 인해 해안가로 밀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체들이 다행스럽게 구조가 되어도 대부분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비(阿比)라는 이름이 특이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남해안 지역에서는 "고새"라고 불렀다하며 북한에서는 다마지라고 부른답니다. 아비를 억지해석하면 "물

가와 친한새"가 되지 않을까요? 또 아비규환이라는 단어에서도 그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아비의 울음소리가 마치 지옥 속에서 울부짖는 중생들의 소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일본식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명칭이 없는 Common Loon도 기이한 울음소리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늑대의 영혼이 환생한 새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포천신문 조서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21세기를 경영하는 가치경영!

국제산업(주)은 다음세대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 무접합 폴리에틸렌 스파이럴 하수관의 특징
- 이음새가 없는 매끈한 직관이다.
 - 벽면에 공간이 나선형으로 형성된 가볍고 경제적인 하수관임
 - 무접합관으로 수명과 내구성이 좋다.
 - 무접합관으로 내진, 충격에 강하다.
 - 강성이 좋고 복원력이 우수하며 하중분산의 효과가 크다.
 - 관의 내부면이 나선형으로 유체흐름이 좋다.
 - 직관형으로 관이음 시공이 간편하다.(Butt융착, 전자소켓융착등)
 - 직관형으로 관이음 시공비 절감

KUK JE PIPE
 www.hdpe-kj.co.kr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국제산업(주)
 KUC Industrial Co., Ltd.

본사및공장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02-3 / TEL: (031)533-2577 FAX: (031)533-3007
 서울영업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90번지 신영체르니 318호 / TEL: (02)579-2577 FAX: (02)2057-3050